

驪江처럼

2013 전반기 통권 제 21호



驪江樓 여강루

이집(李集 1327-1378)

고려시대 문신. 관향은 廣州, 호는 遁村, 문집으로 遁촌유고(遁村遺稿)가 있다.

平林渺渺抱汀洲 포근한 숲 아득히 백사장을 감싸고
十頃煙波漫不流 들에 가득 물안개는 흐르지 않네
待得滿船秋月白 가을 달빛 배에 가득 차오르길 기다려
好吹長笛過江樓 긴 피리 즐겨 불며 강루를 지나네

천령(川寧, 지금의 이포)에 숨어살며 강변에 봉서정(鳳棲亭)을 짓고 목은(牧隱), 도은(陶隱), 적약재(楊若齋) 등과 교류하며 살았던 둔촌 선생의 시는 달밤 뱃놀이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다. 8월 보름 휘영청 만월을 싣고 봉서정에 올라봄은 어떨까.



驪江처럼

2013 전반기 통권 제 21호



■ 표제시 驪江樓 여강루	
■ 포토에세이 그리운 여주	2
■ 발간사 驪江처럼, 빛나는 문화와 역사 담겠습니다	김문영 3
■ 기행문 종묘제례 참관기	이관희 4
■ 여주의 아름다움 거북이를 찾아서	전기중 8
■ 우리 동네 이야기 여강길	박희진 12
■ 시(문학) 속의 여주 황월선전	유명은 14
■ 특집-남한강 나옹과 목은의 관포지교, 그리고 여강 신록사	안동희 16
■ 문화원 사람들 그녀들의 향기에 취하다	유명은 18
■ 여강 편지 여주의 냄새	김말희 21
■ 여주의 민속 흔암리 쌍룡거줄다리기	22
■ 여주의 문화예술 빛의 반영(反影), 화가 이정협	23
■ 경동방송 인터뷰 소개 여주문화원의 비전을 그리다	24
■ 문화원이 한일 문화원 활동 소개(2013년도 상반기)	30
■ 회원 동정 회원 경조사	31
■ 문화원 가족 회원 명단	32
■ 문화원 안내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33

제자題字 '驪江(여강)처럼' 사능 전기중

여주군을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사람들은 여강(驪江)이라 부르며 수 천 년을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여강은 여주를 라일려초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었던 황려(黃驪)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주의 강이라는 자부심과 애착이 오롯이 그 이름에 담겨있다.

표지사진 사진작가 박성우

제2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등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입선 48회 수상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 사무국장
현) 오지사진촬영단 회원, 현) 여주 은모래 사진동우회 고문
홈페이지 : sungwoodpak.com



출처 : cafe.daum.net/ipo

그리운 여주

영릉 봉분에 철없이 오르던 그 시절,
화폭 가득 고운 꿈을 그리던 저 소녀는
영릉의 푸른 솔처럼
아름다운 중년으로 살고 있겠지....

※ 사진 속 주인공 본인이 여주문화원을 방문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驪江처럼, 빛나는 문화와 역사 담겠습니다.



김문영 | 여주문화원 원장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이번 여름도 의미 있고 활기찬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에 안정 속에서 착실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문화원 소식지인 '여주문화'를 발간해 왔었으나 문화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2년간 발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소식지는 문화가족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권리이자 문화원이 제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호를 '驪江처럼'이라 고치고 좋은 내용들을 담아 연 2회 문화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驪江'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지역을 흐르는 남한강에 붙여 준 남한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을 흘러 온 저 여강이 어머니의 젖줄처럼 우리 고장 곳곳을 풍요롭게 했듯이 새롭게 발간하는 문화원 소식지 '驪江처럼'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와 역사를 담아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 드릴 것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이 책이 널리 읽혀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驪江처럼'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우 부원장님과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6월

종묘제례 참관기

이관희 | 여주문화원 후원회원

지난 5월 5일 일요일, 여주문화원에서 해마다 봄 가을로 개최하는 역사문화 탐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종묘제례 행사에 다녀왔다.

행사당일 아침 여주보건소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 들어서니 도심의 즐비한 빌딩 숲은 한산하고 쾌적한 여주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드디어 일차 목적지인 창덕궁에 도착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궁궐 정문인 돈화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 가슴이 트이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창덕궁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울창한 숲과 고색 창연한 위용을 자랑하며 왕조시대부터 현대까지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내고 있었다. 한 시간여 경내를 둘러 보고 나니 '기왕이면 창덕궁'이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창덕궁을 나와 빌딩사이를 비집고 도보로 종묘에 도착 하니 종묘제례를 참관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가 그야 말로 인산인해였다. 우리 일행은 조성문 사무국장의 안내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곧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정전 뜰에 들어서 그늘 밑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종묘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경건함이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는 사이 종묘제례악과 팔일무를 시작으로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의 순으로 종묘제례가 행하여졌다. 제례순서로 보자면 어느 사가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듯 보였지만 그 규모와 예법과 엄격함이 참관인파를 압도하고 있었다.





▲ 김문영 원장 ▼ 이병렬 부원장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로 '종묘대제'라고도 부른다.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 조선 존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성지로, 정전에는 태조대부터 순종대까지 19실에 49위를 봉안하고 있으며,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봉안되어 있다.

이러한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뉜다. 정시제는 춘하추동의 첫 번째 달인 1·4·7·10월에 지내며, 임시제는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지낸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되고 잘 지켜지지 않다가 1969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주관으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해오고 있다.

종묘제례는 예(禮)를 소중히 여긴 조상들의 유교사회에 있어 예의 전범이 된 귀중한 의식으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인다. 고대 중국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이어 내려온 조상전래의 제례의식이다.

중국과 같이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이념이었던 조선시대 또한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법도로 여겨 종묘와 제례를 특히 중시하였다.

종묘제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함께 2001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질작'으로 등재되어 국민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날 영녕전부터 시작된 종묘제례를 모두 참관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다. 한편으로 아현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영 원장님을 지켜볼 수 없어서 내심 만원경이라도 준비해올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지난 2008년 새해 벽두에 방화로 소실되어 온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국보 1호 숭례문의 복원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여주에 내려와서 일행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팔베개를 하고 상념에 잠겼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흥망성쇠의 유구한 시절을 묵묵히 지켜 내며 면면히 이어온 선조의 문화유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문화 향수를 누리며 외국에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문화 국민임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이날 종묘제례 참관을 통해 '유형과 무형의 세계문화 유산을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사례일 것이다.

유무형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라의 전통과 맥이 계승되는 것이다.

문화원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린다.



거북이를 찾아서

사농 전기중 | 여주문화원 이사

길을 가다 큰 비석을 만나면 직업에 길들여진 습관으로 먼저 그 글자체를 자세히 보고 다음에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며 글 지은이와 글씨 쓴 이가 누구인지 살핀다. 나름대로 평을 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자료를 찾기도 한다.

그러던 중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책을 읽고 이들 비석을 보는 방법이 진화하게 되었다.

그 책에는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에 있는 '원종대사혜진탑비'의 귀부와 이수에 관하여 자세히 쓰면서 특히 그 발톱의 힘찬 형태에 대하여 극찬하였다.

다음날 곧장 달려가 책에 쓰여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니 이전에 무심히 보았던 그 거북이가 아니었다. '만사대충 천하건성'으로 살아가는 영성한 나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꼼꼼한 인간으로 확 바뀔 수야 없겠지만 주위의 돌거북이를 자세히 보고 비교하고 무언가를 느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에 있는 대한민국 보물 제6호인 '원종대사 혜진탑비'의 거북이를 보자(사진1)

서기 977년에 건립되었으니 천년도 더 된 것인데 왜놈 치하인 1916년에 비신이 조각난 것을 주워 모아 서울로 올라간 것이 지금 국립 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귀부 위에 이수부분이 올려져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 위에 몸통이 없고 머리만 올려져 있는 꼴이다.

왜놈들이 신묘한 조각 솜씨에 홀딱 반해서 그놈들 특유의 약탈 근성이 발동해 탑비 전체를 해체해서 얼마 전에 돌아온 '북관대첩비' 처럼 어찌해볼 심산으로 덤벼들었다가 그만 깨지고 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닐까? 남의 물건이니 해체

해서 가져가다 깨지면 버리고 무사히 가져가면 큰 보물이 되니까(빛나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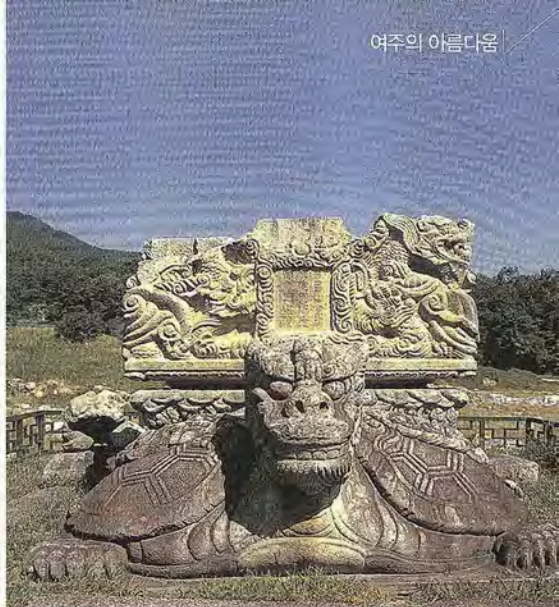
상로(霜露)에 삭아서 그리되었는지, 아지매들이 아들 낳으려고 조금씩 떼어갔는지 코 부분이 닳아서 패여버린 것이 흠이지만 그 부리부리한 눈매와 땅바닥을 움켜쥐고 있는 굳센 발톱은 풍우에 시달리고 세파에 깨어지면서도 황량한 천년 유허를 오늘날까지 평화롭게 지키고 버틴 수호신처럼 보인다.

무섭게 보이는 인상에 비해 굳게 다문 입술 아래 곱상하게 말린 수염은 이웃집 할배 수염처럼 애교스럽게 보이니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이 함께 표현된 미학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 참으로 보아도 보아도 지겹지 않고 볼 때마다 경이로움이 더해지는 걸작이다.

다음은 여주읍 상거리에 위치한 ‘이완장군신도비’를 보자.(사진2) 이 신도비는 길가에 세워져 있어서 지나다니며 자주 대면하게 된다.

장군의 신도비와 묘비의 비문은 모두 우암선생께서 지으셨으며 묘비는 선생께서 직접 전후면을 다 쓰셨다. 미완북벌(未完北伐)의 한을 안고 잠드신 장군의 넋을 위로하는 동지의 피눈물이 두 비석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거북이의 전체 모습은 두루몽실하고 특히 얼굴 부분은 상당히 풍만하며 목이 굵고 장군의 위엄을 상징하듯 수염이 넉넉히 감기어 있다. 주변의 산이 후손인 경주 이씨의 소유라는데 농경지와 도로에 끼여 방치되듯 서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모양새가 워낙 의젓하고 후덕하게 생긴 연유일까 주변 환경을 이겨내며 의연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 (사진1) 원종대사해진달비 ▼ (사진2) 이완장군신도비

이번엔 명성황후 생가에 위치한 '여양부원군신도비'를 보자(사진3)

여양부원군 민유중은 비운의 왕비 인현황후의 생부이니 묘비의 전면 글씨는 사위인 숙종임금의 어필로 되어 있다. 요부 희빈 장씨의 교태에 풍덩 빠져 인현 황후를 신산하게 했던 죄책감으로 정성을 다해 쓴 글씨이며, 묘역 조성과 신도비 건립에도 물력과 성심을 다한 것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소녀시절의 명성황후도 6대조인 이 묘역의 석물에 새겨진 문자와 조각을 보며 가문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과 남다른 품성을 지니게 되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거북이의 머리 모양새는 다른 거북이에 비해 화려한 과장이 없고 조신하게 생겼으며 발톱의 모양도 가늘고 뾰족하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여성적으로 조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른편의 묘역을 향해 힘차게 틀어 돌린 목 근육의 역동적인 조각은 일품이다. 금방이라도 반대편으로 휩 돌릴 것 같은 그 힘줄의 탄력은 나도 모르게 한번쯤 쓰다듬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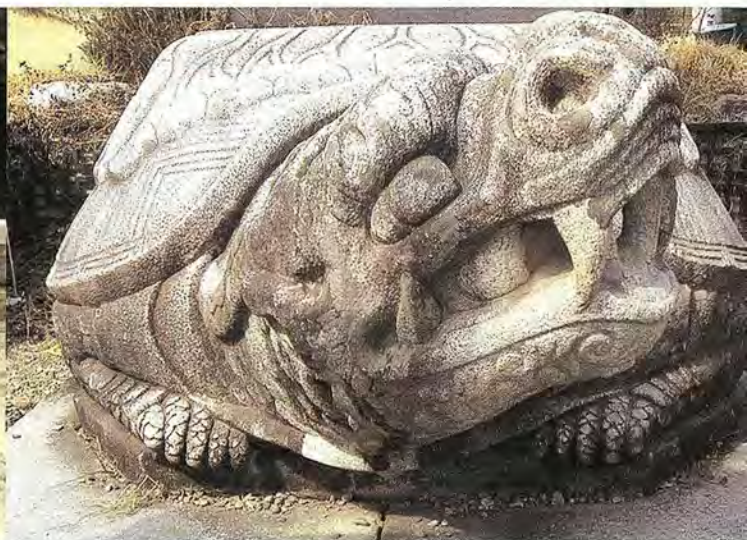
신도비의 주인공인 여양부원군 민유중은 우리 역사상 가장 복이 많은 사람 중 한사람이니, 그는 양송(兩宋)이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우암과 동춘당 두 분을 스승으로 모셨고 스승인 동춘당의 사위가 되었다. 나이가 숙종 임금의 장인이 되어 사후 묘비는 어필로 되었고 신도비의 글은 우암선생의 수제자인 권수암이 지었다.

더욱이 행복한 것은 장남 민진후가 비석 사면의 소자(小字)를 쓰고 차남 민진원이 전액(신도비 뒷면에 전서로 써서 돌리는 양식)을 올렸으니 이런 큰 영광과 큰 행복을 누린 사람은 왕후 장상 중에도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후 정확히 189년 만에 직계 6세손인 명성황후께서 묘역을 지키는 재실에서 탄강하였고, 근년에 와서는 생가 터를 성역화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거북이와 묘역을 찾아드니 복 받은 분이요 천하의 길지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찾을 거북이는 여양부원군의 장남인 '민진후신도비'(사진4)로 가남면 안금리 마을 가운데 있다.



(사진3) 여양부원군신도비



(사진4) 민진후신도비

다른 신도비들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반면 이 신도비는 인가와 농지에 둘러싸여 대접이 좋지 않으니 아침밥 냄새와 저녁 연기에 시달려 거북이는 잔뜩 골이 난 얼굴이다.

빛나 뽕선생이 외지사람들을 몰고 이 비석 앞에 서면 늘 씹먹는 자작 소설이 있으니 이려하다.

옛날 옛적 민진원이 이 신도비를 세울 때 총감독을 했다. 25년 전 자기 아버지 여양부원군의 신도비를 국가 예산을 받고 인력을 지원 받아 조선 최고로 멋을 내어 세워 놓으니 촌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하는 말이, “고달사 거북이 보다가 부원군 거북이 보면 자라 같아”라고 불경스럽게 지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잔뜩 열 받고 살다가 형의 신도비를 세우게 되니 석공들을 달달 북아서 상교리까지 데리고 가서는 해진탑비 부근에 잡초가 무성하고 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는 멀리 서있고 석공들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석공들이 해진탑비를 잘 참고해서 눈을 부릅뜨게 하고 콧구멍도 크게 하고 더 무섭게 보이게 하려고 이빨까지 멋있게 조각했는데, 풀 숲에 가려져 있던 발톱은 보지 못하고 새기는 바람에 거북이 얼굴은 장비처럼 씩씩한데 발톱은 학창의 입을 제갈공명의 고운 손가락처럼 얇전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렇게 멋대로 지껄이면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꼬덕꼬덕 한다. 아 ~ 그러나 아침 해 돋을 무렵 이 거북이 얼굴을 보면 콧구멍과 입에서 금방 김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신비함이 서려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거북이 중에는 가장 씩씩한 거북이가 아닐까 하고 단정 지어 본다.

근년에 세워진 조잡스런 거북이들(사진5,6,7)을 보노라면 정말

짜증난다.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개발 되었고 인터넷으로 찾아 가면 동서양 거북이는 한 시간 안에 다 만날 수도 있는데, 기천만 원씩 내고 대학에서 조각 배운 인재들도 많은 이 나라에서, 천 년 전 선조들이 맨손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깎아 놓은 걸작들의 모조품도 만들지 못하고 웃기게 생긴 갈갈이나 마빡이 처럼 생긴 거북이를 삼천리강산에 짝 늘어놓았으니.... 오호통재라!!



(사진5)



(사진6)



(사진7)



박희진 | 여강길 사무국장

여강을 따라가며 강을 만나는 길

‘여강’은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을 말한다. 여주사람들은 여주를 관통하는 강을 여강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강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여강길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이 테마가 되는 길이다. 여강은 여주 지역의 중심부 100리를 가로지르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여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삶의 터전이 강과 밀접하게 발달해 왔다.

어떻게 강길을 걸었나

여강길을 걸었던 계기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1980년대 대규모의 모래를 강에서 파내는 골재채취 사업이 이루어졌고 환경은 급속하게 훼손되었다. 그 후 2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은 서서히 회복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다시금 ‘남한강정비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골재채취 계획이 재개되었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 중심의 반대 움직임이 일었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전에, 강을 가까이서 보고 제대로 알자는 의미로 강길을 걷게 되었다.

‘생명 평화 남한강도보순례’는 지역의 성직자와 아이들이 중심이었다. 도보순례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을 따라 걷다 강가에 위치한 시골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며,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선비들이 넘었던 아홉사리와거길, 명주실 한 타래도 모자랐다는 깊이의 바위늪구비 등 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남한강도보순례는 해마다 지속되었고 남한강의 유기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참여가 늘었고, 2009년에는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로 선정되었다.

조화로운 삶을 떠올리는 ‘여강길’

여강길 곳곳에 4대강사업이 진행되었고 친숙하게 보이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강모래는 준설되어 인근 논에 모아졌고, 강에서는 모래를 흔하게 볼 수 없게 되었다. 발목까지 오는 물을 차며 거닐던 강가는 깊어서 더 이상 들어 갈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것들이 공원처럼 되었으며, 강길은 공원 산책길로 변하였다. 그렇게 2년.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는 다시 퇴적되어 점점 쌓이고, 삭막하기만 했던 둔치에도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지만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으로 강은 점점 숨을 내쉬고 들이 마시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상처 많았던 여강길이지만 다시금 회복하며 더 많은 사람을 품을 것이다.

우만리 나루터에서 만나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몇 백 년 동안 강과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아침이슬’로 유명한 김민기의 노래 중에 ‘천리길’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 가사 중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라는 구절이 가장 듣기 좋다.

나는 오늘도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비영리단체 ‘여강길’은

비영리단체 ‘여강길’은 남한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상생의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주지역의 자생단체이다.



황월선전

유명은 | 시인

소설이든 여느 매체든 우리 고장 여주가 나오고 아는 사람이 나올라 치면 무조건 반갑다. 여주가 소설 속의 배경이 되었다면 더욱 흥미롭기도 하다. 현대 몇 백 년 전에 여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쓰여졌다. 바로 『황월선전(黃月仙傳)』이다.

『황월선전』은 조선시대의 소설로 작가와 연대 미상이다. 현재 활자본과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각종 문헌에는 소설의 배경이 전라도 여주 문촌이라 소개되어 있으나, 1991년 시흥시 향토사료실이 입수한 청주 한씨 문중 소장본에 따르면 배경이 '조선국 경기도 여주 문촌'이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다.

『황월선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화홍련전과 비슷한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조선시대 황공이라는 선비가 모함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여주로 낙향해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황공은 딸 월선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월선이 10살 되던 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황공은 이웃 마을에 사는 박씨를 새 부인으로 맞는다. 박씨는 성격이 간악해 월선을 학대하고 괴롭힌다. 박씨에게는 월룡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어미와 달리 어질고 착했다.

세월이 흘러 황공은 억울함이 밝혀져 벼슬길에 올라 중국 사신으로 떠난다. 황공이 없는 틈을 타 박씨는 월선을 더욱 괴롭히고 모함하며 해치려 한다. 마음 착한 월룡은 어미에게 월선에 대한 학대를 그만두라고 눈물로 애원하지만 소용없다. 결국 월룡은 월선을 박씨로부터 피신시킨다.

중국에서 돌아온 황공은 노비인 춘섬으로부터 그간의 사건을 전해 듣고 박씨를 내쫓고 월룡에게 월선을 찾아오라고 한다. 월선은 그간 한 노파의 도움으로 결혼을 했고 월선의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군수로 부임한다. 월선은 군수의 아내가 되어 여주읍에서 살고 있었다.

월룡의 주선으로 딸과 사위를 만난 황공은 쌓였던 한을 풀게 된다. 황공은 월선과 효심 깊은 월룡의 청을 들어 박씨를 다시 데려오고 박씨는 마음을 고쳐 개과천선 하여 착하게 살았다.

『황월선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독한 계모에 관한 소설이다. 계모형 가정 소설에는 계모의 자식들도 어미를 닮아 포악하기 이를 데 없어 전처 소생의 자녀를 몹시도 괴롭힌다.

그것은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변하지 않는 룰처럼 전해져 왔다. 하지만 여타 소설과 달리 『황월선전』은 계모의 아들인 월룡이 자신의 엄마로부터 월선을 감싸고 보호한다. 포악한 계모와 달리 그 아들인 월룡이 무척 선량하게 묘사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며 편견을 깨는 반전의 묘미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주를 배경으로 한 오래된 소설을 발견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다.

나옹과 목은의 관포지교, 그리고 여강 신륵사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 ‘군자는 응당 자기 집을 바로 잡아야’

안동희 | 여주의제21 사무국장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 (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如水如風而終我)

-나옹선사 (懶翁禪師, 1320~1376)

나옹선사의 절창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해탈을 꿈꾸며 읊조렸을 나옹의 선시는 시대를 뛰어넘어 중생을 제도하는 불후의 사자후이기도 하다. 나옹의 법명은 혜근(惠勤)으로 스물한 살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을 느껴 사불산 묘적암의 요연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다. 동네 어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것이다.

나옹은 요연선사 밑에서 정진하다 회암사로 가 4년 만에 대오(大悟) 한다. 이후 나옹은 중국 연경 법원사로 가 인도의 고승 지공을 만난다.

- 전략 -

혀로 차 맛 음미하여 삼키니
뼈와 살이 참으로 달라지는 듯
영대의 아주 작은 당이라도
교교하게 밝아 사기(邪氣)가 없구나
어느 차가에 천하에 이 기운 미치리
군자는 응당 자기 집을 바로 잡아라

- 목은 이색 (牧隱 李穡, 1328~1396)



목은(牧隱) 이색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으로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1328년 경북 영덕군 영해에서 이곡의 외아들로 태어나 1341년 원나라로 유학하여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배웠다.

유, 불, 선에 조예가 깊어 유교의 입장에서 삼교를 융합하였고, 훗날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룬 권근, 이송인, 길재, 하륜, 정도전, 김종직, 변계량 등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또한 그의 불사이군의 충절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문장의 조종'이란 칭송을 받을 만큼 시인이자 대문호였던 그는 고려 말기의 학문과 정치에 큰 업적을 남겼다.

동시대를 살다간 나옹선사와 목은 이색은 여강과 신륵사에서 서로 조우하며 각자의 삶의 경계를 넘어 관포지교를 나눴으며, 나옹선사가 신륵사에서 입적하자 이색은 부도탑비의 비문을 손수 지었다.

'탐욕도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고 노래한 나옹선사의 선시에 '군자는 응당 자기의 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색의 시는 묘한 대비를 이룬다.

이 경계는 본시 머물 수 없나니
그 누가 이곳에 머물 집을 지었는가
오직 자기를 버린 이만이
가고 머무는 이곳에 걸리지 않네
- 나옹화상 가송

나옹선사의 가송이다. 목은 이색의 군자의 집은 곧 성리학으로 수련된 그에게 공맹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비록 다선일여의 경지에 이른 듯 선경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가울어 가는 고려(집)를 염려하며 이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의 숙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색에게 다시금 나옹은 머무를 수 없는 경계의 집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의 차향과 시향을 통한 교류는 관포지교를 생각나게 한다. 그들은 마치 선문답처럼 절묘한 시를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여강과 신륵사가 있었다.

'여주(驪州)는 국도의 상류 지역에 있으며,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樂土)라고 칭하여 오는데, 신륵사가 바로 이 형승(形勝)의 북편에 있다. 옛날 현릉(玄陵, 공민왕)의 왕사(王師) 나옹과 한산군 이색 두 사람이 서로 이어 와서 놀았다. 이로부터 이 절이 드디어 기좌(畿左)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수온 報恩寺記)



그녀들의 향기에 취하다

유명은 | 시인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인 점심시간을 피해 찾아 간
오후. 한효정, 효주 자매는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네모 난 햇살 아래 젊은 처자
들이 책을 읽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상큼했다.

신록사 입구에서 식당(호우정·대표 한효주)을 운영하고 있는 한기열,
박호순 부부와 딸 한효정, 효주 자매는 모두 여주문화원 회원이다.

어느 단체이건 가족 중 한 사람만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한기열 씨 가족은 여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한기열(57) 씨는 여주에서 태어나 줄곧 여주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다. 식당운영은 아내와 딸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외릉리에서 한우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농장은 한기열 씨 부친이 운영하던 것을 이어
받아 현재는 한우 100두 정도의 규모로 키워냈다.

새벽부터 밤까지 농장에서 지내는 한기열 씨는 술을 좋아해 가끔 술을 마신다. 그런 날이면 아내
박호순(53) 씨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남편을 데리러 간다. 혹여 남편이 음주운전을 할까 내심 걱정도
있지만 피곤한 남편을 위한 아내의 배려이다. 부부의 금슬도 어찌나 좋은지 남편이 술 마시고 온
날도 아내는 타박하지 않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다음 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면서 박호순 씨는 환하게 웃었다.

한효정(30), 한효주(26) 자매는 식당을 하는 엄마를 도와 밤늦게까지 일한다. 두 딸은 직장을 다니다가
식당을 시작한 엄마를 돕기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식당 일에 뛰어들었다. 호우정을
개업한지는 일 년이 채 안되지만 음식 맛이 좋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자매들의 씩씩한 서빙과
친절도 한 몫 단단히 한다. 효정, 효주 자매는 음식도 척척 만들어 내는 재주꾼이자 효녀들이다.

“직장생활이 더 재밌죠. 식당일은 무척 힘들어요. 아르바이트와는 또 다르게 책임감이 훨씬 강해요. 일종의 주인의식이죠.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자주 못 쉬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몸에 익어서 괜찮아요. 저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와 서빙을 잘하는 동생이 더 힘들 거예요.”
큰딸답게 의젓한 효정 씨는 자신보다도 엄마와 동생 걱정이 더 크다.

“식당을 하다 보니 다른 식당에 가면 말조심 뿐 아니라 음식도 남기지 않고 되도록 다 먹으려고 해요. 식당이 바쁘면 그릇도 치워 주고요.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는 거지요.”
수줍은 듯 웃는 효주 씨의 얼굴이 참 맑다.

자매들은 한결 같이 서빙보다는 손님 대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가끔은 돈을 안내고 가려는 손님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처음 온 손님인데 반말하면서 하인 대하듯 할 때는 화가 나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는다. 그녀들이 유독 친절한 것은 ‘그럴 때마다 수양 쌓는 거라고 자신을 다독 이면서, 어떤 손님이건 최선을 다 하자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결심’ 하는 다부지고 긍정적인 면 때문일 것이다. 한창 젊음을 만끽할 나이에 부모를 도와 식당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그녀들의 자세는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한창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찾아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를 돕겠다고 직장까지 그만 두고 와서 식당일을 도와주니 고맙기 그지없지요. 가족이 힘을 합쳐 일을 하니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어 좋아요. 아이들이 대견한 만큼 미안하고 고맙죠.”
박호순 씨는 딸들에 대한 애뜻한 모정을 살짝 드러내 놓고는 주방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일어섰다. 그녀들의 모습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애가 진하게 느껴졌다.

한기열 씨 가족은 지인인 문화원 이병렬 부원장의 권유로 문화원 회원이 되었다.
“문화원이 여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회원이 되고나니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여주는 세종대왕과 명성황후의 고장인데도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더 라구요. 저희도 여주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주 문화원에서 문화 행사를 통해 여주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효주 씨의 당찬 분석이다.

“여주는 문화축제가 타지방에 비해 적은 것 같아요. 축제가 있다 해도 축제 분위기 보다는 엄숙함이

더 크게 느껴져서 젊은이들은 참여하기가 망설여져요. 양평은 자연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주는 문화재에 비해 활용도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대왕, 명성황후에 대한 축제는 엄숙함이나 숙연함도 좋지만,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활동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주의 문화와 축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정 씨의 조심스런 발언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숙연함과 활동성이 겸비된 축제.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야말로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주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어르신들 위주의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데이트 코스, 자전거 코스,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문화원 사업 중에 젊은 층 위주의 사업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거예요. 무엇보다 문화원이 젊어지고 활성화 되려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효정 씨의 말에 효주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젊은 그들에게서 문화원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느껴졌다. 그들의 바람대로 된다면 문화원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젊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 보였다.

문화는 옛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우리의 문화는 숙성 중이다. 여주를 위해, 여주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고, 기대의 눈길로 바라봐 주는 한 여주의 문화는 융성 할 수밖에 없다.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현재의 문화를 지키며 숙성 시키는 발판에 여주문화원과 문화원에 힘을 북돋아 주는 회원들이 있다.

여주의 문화를 올바르게 지키고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주 문화원의 저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여주의 냄새

김말희

“나 여주로 발령 났어.”

남편의 전화였다. 흥분되고 들뜬 기운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내게 전해진다. 내 피붙이들과 가까이 살다가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 후 우리의 여주살이가 시작 되었다. 처음 얼마간은 여주에서의 생활이 무료하고 답답했다. 갈 곳이 없어 심심하면 화도 났고 그럴 때면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보며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베란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되었다. 수려한 풍광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고 건강한 공기를 알게 되면서 바뀐 변화였다.

어느 여름날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의 광경을 보았다. 장맛비가 바람에 밀려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해 등 떠밀리듯 달음박질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정말 장관이었다.

“명원 아빠 저것 좀 봐.” 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남편을 불렀다. 남편도 한참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다 “그것 봐. 여주에 오길 잘했지? 어디서 이런걸 봐.” 하며 웃었다. 여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 투덜투덜 대며 불평하자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남편은 나에게 여주예찬을 해댔다.

어느 봄날, 성당에서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의 광경 또한 잊을 수가 없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했다. 안개가 여주를 점령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 앞의 차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겨울이면 피는 눈꽃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때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잘 그려진 산수화를 보는 듯했다.

그러다가 여주에서 다시 도자기 만드는 취미생활을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 또한 내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저러고들 살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돈되지 않은 삶을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작은 충격을 받았다.

손수 제집들을 짓고 사는 것이었다. 나무에 비닐을 붙여 만든 방문, 담벼락에 붙여놓은 그들의 작품들, 웅색하게 보일 수 있으나 소중한 가족들이 몸담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진짜 예술가들이었다. 대부분은 공장에서 찍어놓은 듯 한 공산품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정말 수제품에서 살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집이었다. 일반적인 주택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 즈음 서종훈 선생님의 소개로 지금의 직장을 갖게 되었다. 결혼 후 처음 집 울타리를 나선다는 게 두려웠으나 아이들도 다 크고 무료해질 시기에 다시 얻게 된 일자리는 내겐 너무 소중하고 재미있다.

내가 여주에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경험들과 지인들..... 지금은 남편이 내가 자기보다 더 바빠 밥도 못 얻어 먹는다 고 투정도 한다. 이제껏 살았던 내 삶의 몇 곱절 더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신기해 한다. 그리고는 한마디 한다. “재취업의 성공사례야.”

이른 아침이면 강가에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물안개, 그리고 그 내음..... 아마도 훗날 내가 기억하게 될 여주의 냄새일 것이다.

흔암리 쌍룡거줄다리기



쌍룡거줄다리기 재현행사. 출처:인터넷, 김관중 갤러리 갈무리

흔암리는 마을 앞 강바닥에 크고 흰돌이 있어서 흰바위로 부르던 것이 흰바위로 되었다고 한다. 마을 뒷산은 이름 없는 바위산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며 남한강과 접하고 있는데 그곳에 좁은 공간이 있어 '우산절'이라고 하며, 이곳에서 3,000년이 넘는 탄화미가 발견되어 신석기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선사주거 유적이 발견되었다.

흔바위는 남한강을 오가는 배의 정박지로 사람의 내왕이 빈번하고 상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옛날에는 대단히 활기찬 지역이었으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전래되는 민속놀이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쌍룡거 줄다리기'가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 인근지역 사람들과 마을에 있는 뱃꾼과 뗏꾼, 상인 등이 어울려 줄다리를 하고, 얼어붙은 강위에 줄을 올려 놓았다가 얼음이 풀려서 떠내려가면 액이 사라지는 것으로 믿었다.

쌍룡거줄다리가 겨울철 대동(大同)이라면 여름엔 뱃놀이가 있었다.

뱃놀이는 마을 장정들이 상류까지 배를 끌고 올라가 술과 음식을 나누며 마을까지 흘러내려 오면서 노는 것인데 포구에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과 다함께 어울려 놀았다고 한다. 그밖에도 '흙' 싸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윗말과 아랫말 사람들이 흙덩이를 뭉쳐서 던지며 놀던 것이라고 한다.

흔암리 나루는 물이 돌아가는 곳이라 물이 깊어 떼배를 많이 뒀으며 떼꾼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성황을 이뤘고, 건너편은 굴암리로 여주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강 중간의 하중도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나룻배를 주로 이용했으며 마을에 배가 있어 이를 부리는 사공에게 모곡을 주었다. 모곡이란 사공에게 주는 배 값으로, 돈 대신 봄에는 보리 한 말, 추곡 때는 벼 한 말을 주는 것이다.



빛의 반영(反影), 화가 이정협

빛의 반영은 어둠과 여명 사이의 시간의 경과이며 한지에 투영된 그늘처럼 넉넉히 암시하는 빛 그림자이다.

이정협은 작품세계는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나무의 수액(樹液)처럼, 생명의 근원인 신경조직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천지인(天地人)의 조화를 이룬다.

한국인의 상징인 소나무는 때로는 그의 완숙한 붓 놀림과 붓 터치 속에서 표현되며 수묵의 농담으로 중첩된 필선은 생명력으로 표현되어 우아하고 섬세한 절제의 미(美)를 보여준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피조물과 영속적인 것에 대한 움직임의 변형물이고 순환관계이다.

— 종락 —

묵상으로 부티의 큰 침묵은 그만의 작품세계이며 창작 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원동력이다. 이정협은 작품적 가치는 바람의 숨결처럼 외유내강(外柔內剛) 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예술 세계이다.

장-피에르 플랑송(사인, 예술비평가) 번역·지창림(렌드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이정협

화가이자 도예가이다. 오악리에서 영주현(요장)과 이정협 갤러리(매장)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동아 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등 수상경력이 보여주듯 왕성한 작품활동을 통해 그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여주지부장을 역임 했다.



여주문화원의

비전을 그리다

여주문화원

진행자 2011년 6월에 취임하여 2년간 문화원장으로 지내시면서 나름 보람된 일도 있으실 거 같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일도 있으셨을 거 같은데요.

김문영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화원 임원을 재구성하고 신입 회원을 확대하면서 우리 문화원이 여주문화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쇠신한 점이 보람있는 일로 기억됩니다.

아쉬운 일이라면 지난해 5월 여주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문화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주군과 군의회를 설득해서 문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진행자 여주는 세종대왕릉, 명성왕후 생가, 신륵사 등 문화유적이 참 많은 곳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문화원장 여주문화원은 사단법인인 민간조직으로 1968년 4월 11일 창립되었습니다. 아직 독립된 문화원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여주군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와 향토사를 보존하고 보급하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국내외 교류 및 사회교육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로는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에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간추린 여주군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속사업으로는 세종대왕숭모제전, 세종문화큰잔치, 명성황후숭모제, 묵사 류주현문학상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화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문화원장 여주문화원은 여주문화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걸 맞는 문화원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문화원의 본질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 스스로가 여주문화의 주역임을 깨달아 자부심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군민 하나하나가 여주문화를 구성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여주문화원은 역동성을 가진, 미래의
 희망이 있는 새로운 문화원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최근 여주문화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문화원장 우리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어떻게 미래로 이어져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역사적 사실을 감동 있는 해설로 군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져 미래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명성황후 피난길 답사입니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 명성황후가 피난한 지역인 여주 - 양평
 - 장호원 - 충주를 답사하는 행사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임오유월 일기'를 바탕으로 자세한 해설을 들으며
 피난 시절의 명성황후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단종대왕 유배길 답사입니다.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고 영월로 유배를 떠난 단종은 여주를
 거쳐 가게 됩니다. 여주에 남아있는 단종관련 지명을 통해 단종의 유배길 행적을 찾아보는 답사로 이포 -
 천서리 - 보통리 - 상구리 - 서원리 - 간매리 - 행치고개 등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의 구전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효종대왕의 북벌답사 프로그램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북벌을 준비했던
 주역들을 찾아보는 답사입니다. 효종대왕릉 - 이완장군묘 - 대로사 - 원두표장군묘를 돌아보고 북벌을 위한
 준비와 실행과정을 살펴보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이밖에 지역 교육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문화원장 여주는 세종대왕의 얼이 살아있는 세종대왕의 도시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여주집현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세종대왕의 생애와 리더십을 교육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지만 8차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일반 군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소년들과 이웃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여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한글날 행사' 나 '명성황후 추모제'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행사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문화원장 한글은 세종대왕이 재위 32년 동안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글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기울어져가는 조선의 국운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우리의 국모입니다.

한글날 행사와 명성황후 숭모제는 세종대왕과 명성황후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를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숭고한 행사입니다.

진행자 네. 이렇게 직접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느끼신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원장 우선 전통과 명성이 높은 전국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날 행사와 명성황후 숭모제가 여주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행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행사의 의미를 더 널리 알리고 행사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여주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글날 행사라든가 명성황후 숭모제전 같은 행사들이 군민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와 함께 이런 행사에 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여주군이 지원하는 행사에 의욕이 강한 공무원들의 지도와 감독이 지나친 간섭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금과옥조를 행정과 민간이 다 함께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 낼 때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행자 네. 사실 그동안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역할을 문화원이 앞장서 왔는데요... 문화원장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장 문화원은 문화원의 설립목적인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전 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 타 없어지는 썸’이라고 갈파한 아프리카의 어느 철학자의 말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지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이 문화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란 한 민족이나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삶의 총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되는 가운데 체계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변화생성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며 미래를 지향하는 일에서 문화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뿌리를 두지 않는 현재는 불안한 법입니다.

진행자 네. 그렇다면 조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주문화원의 경우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조직과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먼저 문화원 회원을 확충하되 무분별하게 회원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관심이 깊고 열정 있는 회원들을 모아 여주문화와 접목하는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뒷받침할 문화원 사무국의 인원도 보충하고 체제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원 원사를 건립하여 군민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행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문화원장 지역민들의 참여는 비전의 공유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주가 세종대왕의 고장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을 바로 아는 교육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세종대왕의 업적 중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날 행사의 의미제고와 유네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종대왕상'의 여주유치를 추진하는 일에 지역민을 동참시켜 여주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비전에 지역민을 공유하게 하므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네, 그 동안 지역민들을 위해 애쓰셨고 또 지금은 문화원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임기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거 같아요?

문화원장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500명 회원 확충하여 문화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주군민들이 인정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여 여주군민 모두가 여주 문화원 회원이 되는 시대의 기초를 놓고자 합니다.

진행자 네, 여주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알리는데 여주문화원이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김문영 여주문화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장 감사합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
박정자의 11월의 왈츠 ▲
조기울 낙화놀이 ▲

2013년도 상반기 문화원 활동 소개

문화 사업

- 해맞이 행사 | 1월 1일, 연인교(구 여주대교), 1,500명
- 여주문화 알리기 특강 | 1/24, 5/15, 5/22, 5/30일(4회), 장애인 복지관, 40명
- 연극공연(11월의 왈츠-박정자) | 2월 16일, 세종국악당, 1,000명
- 조기울 낙화놀이 | 2월 25일, 가남면 본두 1리, 300명
- 종묘대제 참관 | 5월 5일, 서울 종묘, 40명
- 세종대왕 승모제전 | 5월 15일, 영릉, 2,000명
- 춘계유적답사 | 5월 24일, 춘천 - 김유정 문학촌, 가평 - 남이섬, 62명
- 단오제 | 6월 1일, 가남면 금당리, 200명
- 어르신 집현전 | 6월 3일(매주 월요일 10회), 노인복지관, 30명

회의 개최

- 정기총회 | 2월 22일, 예다음 웨딩홀, 110명 참석
- 이사회 | 제1차 : 2월 7일
- 부원장회의 | 제1차 : 1월 31일, 제2차 : 2월 14일, 제3차 : 3월 14일



△ 세종대왕 송모제전



△ 준계 문화유적 답사



△ 단오제

2013년 상반기 문화원 회원 동정

경조	3월	김윤기 이사 여주군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취임
	4월	이용남 회원 아들 결혼, 김옥강 회원 보노 경양식 개업
	5월	이준필 이사 아들 결혼
	6월	원경희 회원 아들 결혼, 박병창 이사 세종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상조	1월	김문영 원장님 모친상
	2월	이주현 회원 부친상
	4월	이난우 전원장님 시어머니 별세
	5월	원유화 회원 시아버지 별세

상임고문	원용문, 김덕배, 박찬수
원장	김문영
부원장	김태수, 박광우, 유인성, 경규명, 전호동, 이병렬
이사	강현숙, 김구배, 김상민, 김영길, 김윤기, 김정우, 김종성, 김창식, 박병창, 박형섭, 신재훈, 오병준, 이두연, 이용섭, 이정식, 이준필, 임영현, 전기중 정익채, 조은한, 주명덕, 최병식, 한득현
감사	안동희, 박문신
여성위원회	회장 : 남상분 부회장 : 엄애경, 김옥강 감사 : 나정희 총무 : 심옥순 고순자, 김경자, 김남옥, 김동실, 김명식, 김상례, 김성미, 김영석, 김은경, 김인순, 김준옥, 김한숙, 도영미, 박영복, 배순예, 서근옥, 송경숙, 송영순 신음전, 안귀자, 안숙자, 안영복, 양민자, 우춘자, 유인호, 원유화, 윤정윤, 이경순, 이경희, 이도연, 이상옥, 이애숙, 이애순, 이영명, 이용남, 이지영 이진규, 장수연, 장순연, 장현익, 정수연, 최난이, 최옥희, 추형숙, 한재연
회원	김광섭, 김문환, 김은희, 김진학, 남창현, 류호창, 문성무, 박관우, 박덕규, 박병진, 박수근, 박준환, 박치윤, 박현일, 서종훈, 손현덕, 신건화, 안용호 안현주, 유용화, 이난우, 이대성, 이민수, 이보택, 이영옥, 이영재, 이은순, 이장호, 이태희, 이항진, 이현숙, 정승철, 조상민, 조성문, 탁옥남, 하근수 한덕우, 홍석영
후원회원	경범수, 경치호, 곽상교, 곽윤식, 곽현용, 곽호건, 권동선, 권영옥, 권오성, 권오중, 권진용, 권치영, 권혁환, 길병동, 김 욱, 김경근, 김경미, 김경희 김계용, 김규상, 김규창, 김근수, 김근식, 김기환, 김남화, 김덕하, 김미진, 김병철, 김병훈, 김삼화, 김삼경, 김상국, 김선준, 김성환, 김소희, 김소옥 김순자, 김양희, 김연자, 김영구, 김영기, 김영숙, 김영자, 김용환, 김재영, 김재용, 김재인, 김재환, 김정구, 김정훈, 김창환, 김태근, 김태환, 김학모 김학범, 김한석, 남영우, 노재인, 민경호, 민문기, 박광석, 박광재, 박광천, 박기순, 박래화, 박명기, 박복동, 박성도, 박성철, 박숙희, 박암평, 박은미 박익원, 박재동, 박재명, 박종록, 박준수, 박현근, 박형진, 박홍철, 백계옥, 백규현, 백성현, 변현구, 변현미, 서병용, 서정식, 서정희, 성교훈, 성낙진 소지영, 손동식, 손성일, 손정국, 신영해, 신철용, 신현대, 신홍선, 심우형, 심재철, 심종현, 심호경, 안미숙, 안용석, 안재훈, 양광석, 양성모, 양승자 양승호, 엄우현, 엄정민, 엄정희, 오재호, 오정택, 원경희, 원정호, 원진식, 유 일, 유영숙, 유영은, 유양서, 유연상, 유영대, 유용호, 유유순, 유종석 유호진, 유희선, 윤경선, 윤형록, 윤희정, 이경란, 이경세, 이경애, 이관희, 이동선, 이두환, 이상준, 이상훈, 이수진, 이명숙, 이용수, 이우선, 이은기 이재규, 이재문, 이중득, 이중성, 이주현, 이준호, 이준호, 이진수, 이진원, 이진호, 이치섭, 이태한, 이필재, 이한명, 이해준, 이혜숙, 이환교, 이효동 임경수, 임병옥, 임상규, 임상식, 임승일, 임창선, 임천규, 장금향, 장배근, 장보선, 장영동, 장영철, 장현순, 전창중, 전충기, 정성근, 정성범, 정연숙 정은주, 조두현, 조미령, 조성경, 조영주, 조용민, 조정재, 조종화, 조현광, 조현주, (주)거산, 주경옥, 주동균, 주영석, 주재성, 지석양, 지웅길, 지현우 차세옥, 차용호, 창성경, 채용훈, 최 욱, 최명수, 최병덕, 최영철, 최은영, 최익규, 최종만, 최준범, 최진상, 추금수, 표인철, 한기열, 한효정, 한효주 한훈구, 한희봉, 함용석, 허 덕, 홍성옥, 홍재덕, 황갑용, 황창성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여주문화원은 여주군의 시 승격 원년을 맞이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통한 문화융성과 지속가능한 보존·전승·개발을 위해 혁신과 창조의 열망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여주문화원은 여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문화사업 활성화를 지향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주문화원의 사업은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개발 및 창달
-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사회교육 활동 등

■ 회원으로 함께하시면

-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에 우선 참여
- 문화원 유적답사 등 문화활동에 초청
- 문화원 발간자료의 수령 및 소장 자료의 대여 및 열람
-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개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

■ 가족이 되시려면

- 문화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작성. (일반회원·후원회원, 회비 월 만원)
- 또는, 전화 031) 883-3450으로 문의



‘여강처럼’ 원고모집

「여강처럼」은 문화원 가족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지혜로 만들어 집니다.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여주에 대한 추억과 제언 등 형식과 내용에 구애됨 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여주문화원)
홈피 : www.yeojucc.co.kr > 커뮤니티 > 온라인상담

▶ 보내실 때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驪江처럼》 2013년 전반기(통권 제21호)

발행일 | 2013년 6월 발행인 | 문화원장 김문영

발행처 | 여주문화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 031 883 3450, www.yeojucc.co.kr

편집위원장 | 박광우 편집위원 | 전기중, 유명은, 안동희 디자인 · 인쇄 | 남한강종합인쇄(031 886 7353)

역사와 문화의 고장 여주, 2013년 9월 23일 **여주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1469. 9. 23 예종(원년) 여주목(牧) 승격
1895. 6. 18 고종(32년) 여주군(郡) 개편
2013. 9. 23 여주시(市) 승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50호, 2013. 6. 4. 제정·공포] [시행 2013. 9. 23.]

여주장례식장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대표 김 규 배 · 유 인 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2리 981-7
전화 031. 885. 1919 | 886. 1919

※ 여주장례식장은 여주문화원 회원가족의 엄숙하고 존엄한 상례를 돕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문화원 회원님께는 소정의 할인을 해드립니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
Tel. 031 883 3450